

레위기 부터 시작합니다.

1. 가장 오해 받는 책, 레위기의 반전

많은 사람이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 영화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멈춥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제사 규정, 낯선 용어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이걸 꼭 읽어야 하나요?”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창세기도 아니고 시편도 아닌 레위기부터 시작합니다. 1)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레위기를 신앙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 책이 어린 자녀의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을 심어 준다고 믿습니다.

즉,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룩한 교과서이며,
그 마음을 자녀의 신앙 안에 뿌리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1) Vayikra Rabbah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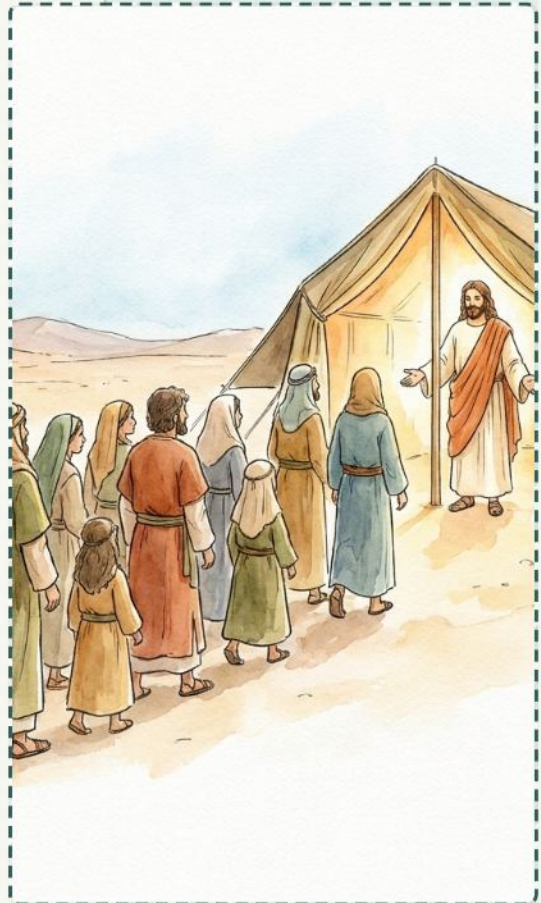
바이크라, 그가 부르신다

וַיִּקְרָא

명령보다 먼저 온 이름

우리가 흔히 레위기라고 부르는 이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바이크라입니다. 그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신다”입니다.

레위기는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열립니다. 딱딱한 율법서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로 시작되는 이야기

레위기 제목인 바이크라의 처음 글자는 접속사 바브, ַ로 시작됩니다. 그 뜻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가 먼저 시작되는 이유는, 레위기가 갑자기 등장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	내용
창세기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출애굽기	어린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짓게 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성막에 가득한 영광과 남은 질문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와 영광이 충만했지만, 모세조차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출 40:34-35).

완성 뒤에 드러난 문턱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음 장면에서는 모세조차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인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질문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거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레위기입니다.

레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신 길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교제의 안내서

레위기는 복잡한 제사 규례의 책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함께 살도록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내려오시고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 내시고 자유의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치신다.

핵심 문장

레위기는
은혜로 주어진
친밀한 교제의
안내서다.

레위기: 은혜로 주어진 친밀한 교제의 안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려 주는 지침서이며 안내서, 곧 복음이다.

코르반 "예물"

코르반 — 카라브, קָרָב

코르반은 히브리어 카라브에서 나온 말이며, 카라브는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다.

예물을 넘어서는 의미

코르반은 흔히 예물이라고 번역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를 넘어서는다. 코르반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는 것이다.



코르반의 본질은 제물을 바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는 데 있다.

여호와와 백성에게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은 복이며 즐거움과 기쁨이다.

거룩과 구원 이후의 삶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됨이며, 레위기는 구원 이후의 삶을 가르치는 책으로 제시된다.

거룩



거룩, 코데쉬, קדש는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됨이라는 뜻이다. 거룩은 단순히 결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상태다.

율법의 자리는 구원 이후다

레위기는 율법의 책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었다. 따라서 레위기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지를 보여 주는 책이다.

은혜 안에서 걷는 길

레위기의 율법은 은혜와 반대되는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 안에서 걷는 길이다.

번제, 올라

עֹלָה

올려 드리는 제물

번제, 올라는 올려 드리는 제물을 뜻한다. 많은 사람은 번제를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로 이해하지만,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는 화제이며 번제는 화제의 한 종류이다.

번제의 본질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나를 대신한 짐승을 잡아 불로 태우고 그 향기를 여호와께 올려 드리는 제사이다.



불꽃과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듯, 나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한다.

왜 번제가 먼저인가?

레위기가 번제로 시작하는 것은 관계의 출발점이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임을 보여 준다.

순서의 반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흔히 죄를 씻는 제사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레위기는 속죄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로 시작된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그보다 앞서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다.

번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 죄를 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이다.

핵심

번제는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응답
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죄가 아니라 사랑이다.

회막 문 앞에 선다는 것

회막 문 앞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장소를 넘어선 자리

회막 문은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곧 휘장으로 된 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회막 문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곧 언약궤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면 꾸밈없는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G.J. Wenham은 자신의 책 "The Book of Leviticus" p.53에서 회막문을 성막 입구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오류입니다.)



핵심

감출 수 없고 포장할 수도 없는 실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것, 그것이 회막 문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번제와 속죄의 관계

레위기 1장 4절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 번제물을 드린자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번제를 드리는데
속죄라는 말이
나오나요?**

속죄제

부정한 것에 접촉했거나,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구체적인 잘못을 다룬다.

번제

법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마음에서 드린다.

핵심

속죄제는 구체적 죄의 해결이고, 번제는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안수하나요?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소나 양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힘껏 눌러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의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두 손으로 제물의 머리를 누른다는 것은, “이 제물이 곧 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물과 자신을 하나로 동일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제물이 곧 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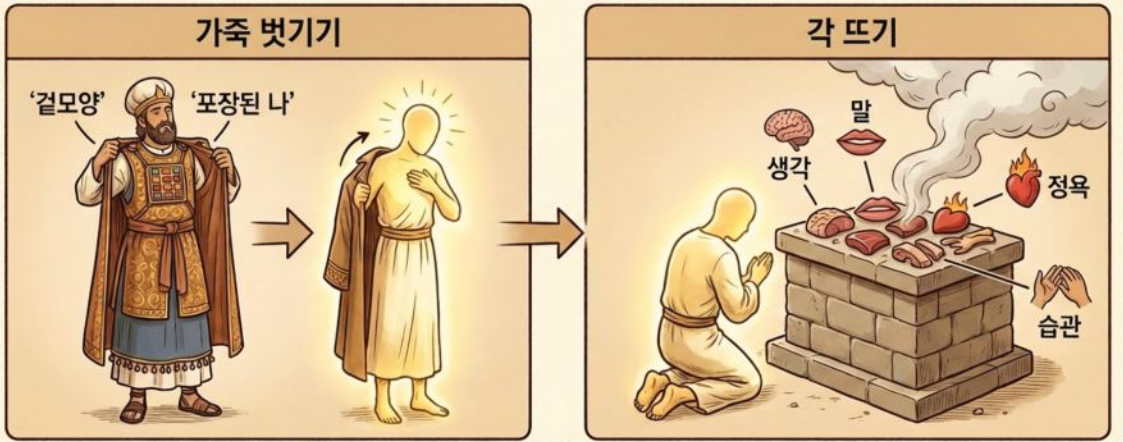
남김없이 드리는 고백

제물이 불 위에서 남김없이 태워져 하나님께 올려지듯, 드리는 사람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조건 없이, 남김없이 드리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두 손에 담겨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의미는?

번제의 의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다 (레위기 1:6)



01

가죽을 벗긴다는 것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자신의 겉모양과 포장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02

각을 뜯다는 것

또한 각을 뜯다는 것은 제물을 토막내는 것인데 이는 내 자신의 모든 영역(생각, 말, 정욕, 습관 등)을 다 하나님 뜻에 맞게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각각의 번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각각의 짐승은 그 짐승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01

소로 드리는 번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일을 내가 힘을 다하여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를 드립니다.

소는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소의 머리에 안수하며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로 드리는 번제

핵심 고백: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

02

양으로 드리는 번제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을 예물로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형편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특히 물질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양으로 드리는 번제

핵심 고백: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함

두 번제의 대비

소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힘의 상징이고, 양은 재물에 있어서 목자의 신뢰를 상징합니다. 두 번제는 각기 다른 실패, 섬김의 부족과 신뢰의 부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염소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고백과 연결되고,
새로 드리는 번제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준다.**

03

염소

고집을 내려놓는 고백

염소는 고집을 대표한다. 자기 고집에 따라 사느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염소에 안수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04

새

형편을 헤아리시는 마음

새로 드리는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게 된다. 이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소, 양, 염소로 드릴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새로 드리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하나님은 번제의 헌신을 요구하시면서도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신다.**

번제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속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 자신을 드린 번제로 설명된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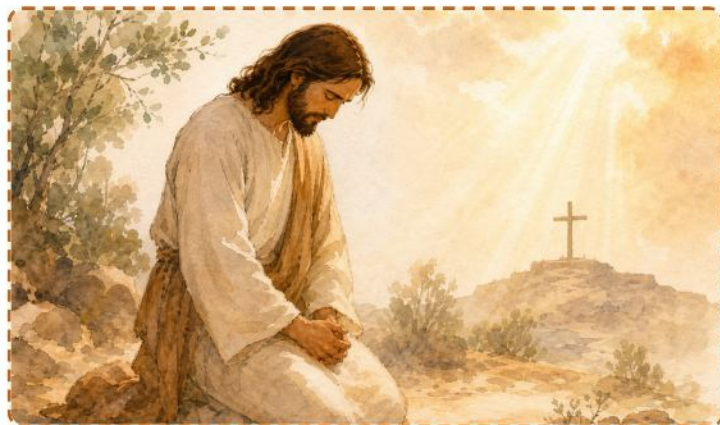
히브리서 10장 7절

속죄제의 초점, 번제의 초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린 번제였다.

속죄제가 죄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 그 자체에 초점이 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모범을 보여 주셨다.



번제와 내 삶

번제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번제물 위에 손을 얹는 순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삶을 맡기기

번제물 위에 안수하는 것은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합니다”라는 고백이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1)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니면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남아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나는 오늘 어떤 선택으로 살아낼 것인가?

번제의 삶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려놓음과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소제, 민하

소제, "민하"는 일상의 감사로 드려지는 삶의 제사입니다. 매일 누리는 생존과 풍성함 그리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

밀가루

인간의 생존, 곧 생명의 유지를 상징하며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둘

기름

삶의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셋

유향

향기로운 만족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만족하여 드리는 마음입니다.

번제와 소제의 차이

번제가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소제는 소제물을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념물

기념물 아즈카라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웁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레 2:2

01 한 웁큼이 전체를 대표함

소제를 밀가루의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드릴 때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에서 한 웁큼을 집어서 기름과 유향과 함께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여기서 가져온 전부를 불사르지 않는 이유는 한 줌의 고운 가루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를 기념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2 기억해 달라는 요청이 아님

이 기념물은 히브리어로 “아즈카라”인데 이는 “자카르(기억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이 기념물로 드린다는 말의 뜻은 이 소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가 이 소제물을 이렇게 드리니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용어

아즈카라

자카르, 곧 “기억하다”에서 온 말

핵심 구분

한 줌은 남겨진 나머지와 분리된 조각이 아니라, 전체 소제물을 대표하여 제단 위에 올라가는 기념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

이는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즈카라”는 단순한 기념이나 기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예배에 참석했으니 저를 기억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소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실 때, 그 사람은 언약의 약속에 따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또한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R. Hirsch는 소제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속 함께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1)

1) R. Hirsch, P.65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레아흐 니호아흐)는 단순한 좋은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의 소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만족하시는 상태를 뜻한다.

레아흐

향기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제를 기억하신다. 제물에서 올라가는 향의 연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드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시작된다.

니호아흐

기쁨 · 받아들여짐 · 만족



감사의 소제가 기억되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3-4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소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관계의 신호다.

일상의 드림

평범한 것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소제는 화려하거나 극적인 제사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보이지 않는 일상의 섬김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도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데릭 티드볼은 레위기의 다양한 규례들을 설명하면서,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행위도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눈에 띄는 사역뿐
아니라 의자 정리, 아기 돌봄, 청소, 식사 봉사, 보이지
않는 섬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

공부와 일, 자녀 양육과 손으로 만든 결과뿐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수고도
감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자 정리

아기 돌봄

청소

식사 봉사

핵심 고백

**하나님은 특별한 것뿐 아니라
평범하고 반복적인 헌신도 기쁘게
받으신다.**

다양한 방식과 고넬료의 구제

소제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드러지는 제사가 아니라, 각기
다른 삶의 자리와 형편 속에서
드러지는 다양한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길이다.

화덕 • 철판 • 냄비

하나의 제사, 다양한 준비

소제는 한 가지 정해진 방식으로만 드러지는 것이
아니다. 화덕이나 철판, 냄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확실적인 형식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삶의 자리와 형편 속에서
드러지는 다양한 헌신을 받아 주시는 분임을 보여
준다.

고넬료의 소제

기도와 구제가 기억되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린 소제는
구제이었습니다. 성경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고 말합니다(행10:4).

기억됨

중요한 것은 형식의 통일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지는 다양한 방식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구제 → 하나님께 기억됨 (아즈카라)

결과 → 하나님이 응답하심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이 무엇이였습니까?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마치 소제제사의 제물의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고넬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감사가 은혜의 문을 연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손에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수고의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것이 내 노력의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이 차이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그 삶을 기억하시며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기도의 방향

감사가 은혜의 문을 연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서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소제의 제물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심으로 그 향기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잔치

화목제의 주제와 출발점

우리 삶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출발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평화롭게 교제하는 시간

구약의 레위기에는 이러한 기쁨의 절정을
보여주는 제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화목제
(Zebach Shelamim)입니다.



레위기 3강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식탁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가 등장합니다. 죄 사함을 위한 속죄제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이 개인의 헌신이나 일상에서의 감사의 표시, 혹은 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화목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잔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
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예배자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식탁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예물이고 선물입니다.

셀라뎨과 샬롬의 의미

화목을 뜻하는 히브리어 ‘셀라뎨’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평화보다 넓은 말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샬롬은 훨씬 더 깊고
넓은 개념입니다.

샬롬은 온전함, 흠 없음과 완전함, 부족함 없음,
충만함, 모두 다 마침, 조화, 안녕, 평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שלום

핵심 정리

샬롬은 내면의
편안함만이 아니라
온전함과 조화와 관계
회복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관계적 살롬

살롬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환경 사이의 조화를 가리킵니다.



살롬이 사용되는 자리

온전함 / 흠 없음 — 레위기 3:1

온전한 저울 추 — 신명기 25:15

모든 일을 마치심 — 창세기 2:3

안녕(인사) — 창세기 43:27

핵심

진정한 화목은 자신의 내면의 평안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이웃과, 나를
둘러싼 환경의 관계까지 온전해지는 상태입니다.

제바흐와 거룩한 식사

Zeb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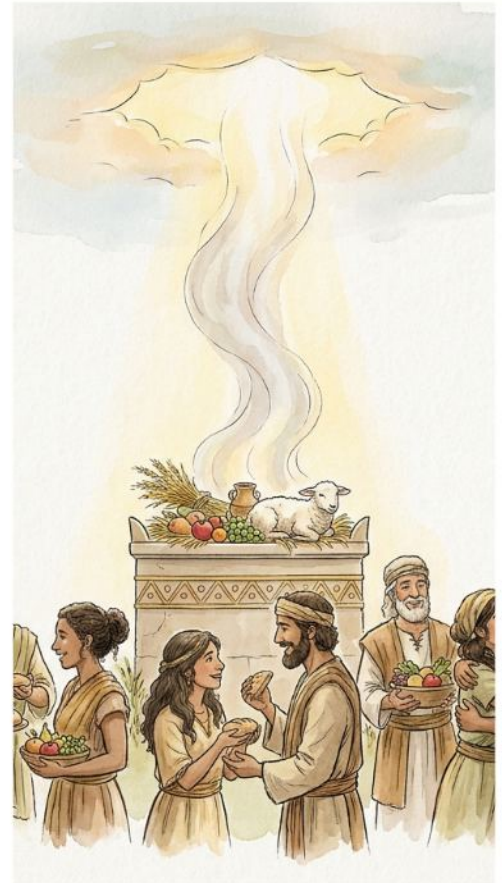
A meal eaten in company ·
함께 먹는 식사

화목제에서 '제사'는 히브리어로 '제바흐'(zebach)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제단에 바치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함께 나누는 식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에서는 제물이 이렇게 나뉩니다

- | | | |
|----|---------|---|
| 01 | 기름 | 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
| 02 | 가슴과 뒷다리 | 는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
| 03 | 나머지 고기 | 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수직적 관계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수평적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개인의 평화에서 공동체의 잔치로

화목제는 결코 혼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화목제를 공동체 식사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가슴과 뒷다리를 주며, 나머지 고기는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먹습니다.

진정한 평화, 곧 살림은 나 혼자만의 결핍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개인은 혼자서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참된 살림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기쁨을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화목제물을 드리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제사일 뿐입니다.



나의 감사와 기쁨이 공동체의 식탁으로 흘러넘칠 때, 그것이 진정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또는 낙헌제로 나뉩니다. 세
제사는 모두 화목제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기의 결이
서로 다릅니다.

감사제

Todah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질병이나
위험에서 구원받았을 때
드리며, 받은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나눕니다.

서원제

Neder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와 연결된 헌신이며,
성취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자원제 / 낙헌제

Nedavah

자발적인 사랑과 기쁨에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나와 드리는
제물이며, 화목제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의 헌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화목제의 세 종류는 감사의 응답, 약속의 헌신,
자발적 사랑이라는 서로 다른 동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은 생명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에 덮인 꺼풀

– 레위기 3:9-10

כֶּלֶב 헤레브, 생명의 에너지

기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כֶּלֶב(chelev)은 동물의 가장 풍부한 영양가가 있는 부분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간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자신이 가진 힘과 에너지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 그 에너지를 하나님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자원하여 제한하겠다는 표현

콩팥을 드리는 의미

화목제는 콩팥 위의 기름만이 아니라 두 콩팥 자체를 모두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



내적 선택의 자리

탈무드는 사람 안의 두 콩팥을 하나는 선을, 다른 하나는 악을 조언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그래서 콩팥은 단순한 신체 기관을 넘어 인간의 내적 선택과 도덕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이해된다.¹

Rabbi Hirsch는 기름을 삶의 에너지와 활력으로, 콩팥을 그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중심으로 본다.

핵심 정리

콩팥을 드리는 것은 생명의 에너지뿐 아니라 그 에너지를 사용할 내면의 중심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다.

¹ Talmud Bavli (Berakhot 61a)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식탁 교제의 신비

레위기 3장은 화목제를 가리켜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 레위기 3:11

01 왜 화목제만 ‘하나님의 음식’인가

번제나 소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러나 유독 화목제만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불립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번제와 소제의 경우, 드리는 제물의 연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맡으시면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 곧 레아호 니호아호가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표시가 됩니다.

02 화목제의 의미

화목제에서 제물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03 교제의 문이 열리는 식탁

이사 와서 옆집에 떡을 돌리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이 그 떡을 받으면 교제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예배자들의 식탁에 함께하셔서 교제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표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핵심 구분

번제와 소제는 기쁘게 받아주심의 표시로 향기로운 냄새를 말하고, 화목제는 교제가 이루어진 표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화목제물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올려놓는 과정은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 히브리서 10:7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 요한일서 2:2

번제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번제물처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후에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적용: 이미 충분한 예배

화목제의 오늘날 적용은 결핍에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나아가는가?

결핍에서 한 걸음 더

우리는 종종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하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것 역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핵심 문장

화목제는 “하나님 때문에 이미
충분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필요한 분”으로만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미 충분한 분”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목제의 공동체성

화목제는 함께 잔치 음식을 먹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흘어지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까?

화목제적 교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 1 예배 후에도 서로의 삶을 묻고 나누는 교회
- 2 식사를 통해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교회
- 3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로 돕는 교회
- 4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교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봅시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목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N. T. Wright은 화목을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01 예수님의 식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지판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화목제

오늘날 우리는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화목제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부분을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소제를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노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을 VIP(honored guest)로 모시고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

3) Honored guest - Baruch Levine, p.15